

2025. 10.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5. 10. 5.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감사의 계절, 열매의 계절

시애틀에도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푸르던 나무들이 노랑과 붉은 빛으로 곱게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가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또 순원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의 사진들을 남기며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순장님들이 전해주시는 순모임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말쑼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순원들과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순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가정과 공동체에서 좋은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열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을 담아, 권 준 드림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도임 프리뷰

순도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10월 1일 본문, P178 |

핵심 주제 Focus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 율법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한 의로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편지의 후반부인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는 실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복음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며, 바울은 이를 위해 무엇을 권했나요? (1-2절)

1-2 <적용과 나눔>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음을 설명하며 어떤 은사를 예로 드나요? (6-8절)

2-2< 적용과 나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내가 사모하며 구할 은사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의 목표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



핵심 주제 Focus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로마서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p>1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p> <p>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p> <p>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p> <p>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p> <p>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p>	<p>1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p> <p>2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p> <p>3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함입하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p> <p>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p> <p>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p>	<p>1 I appeal to you therefore, brothers,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worship.</p> <p>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p> <p>3 For by the grace given to me I say to everyone among you not to think of himself more highly than he ought to think, but to think with sober judgment, each according to the measure of faith that God has assigned.</p> <p>4 For as in one body we have many members, and th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p> <p>5 so we, though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p>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
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6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
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
대로,
7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
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8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
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
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
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6 Having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us, let us use
them: if prophecy, in proportion
to our faith;
7 if service, in our serving; the one
who teaches, in his teaching;
8 the one who exhorts, in
his exhortation; the one who
contributes, in generosity; the
one who leads, with zeal; the one
who does acts of mercy, with
cheerfulness.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 율법의 한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한 의로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 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편지의 후반부인 로마서 12 장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는 실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복음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며, 바울은 이를 위해 무엇을 권면했나
요? (1-2절)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며,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해설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사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동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기초하여 사용된 동
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
리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로 드리라
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1세기 당시 비성경적인 문화들과 생각들
을 닦아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오히려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마음(nous)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 사회에서는 감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2 적용과 나눔 내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이 세대'라는 의미는 악하고 불의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주의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부정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이성(idea)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들과도 너무 비슷한 다신론적인 우상의 예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의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2-1 관찰과 묵상 바울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음을 설명하며 어떤 은사를 예로 드나요 (6-8절)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은사의 예로 들었습니다.

해설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란 특별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구약성경과 다른 예언자들에게 의해서 점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은사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영어의 deacon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재정 또는 물질로 섬기는 자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새롭게 주어지는 예언의 성격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엡 4:21, 골 1:28, 2:7).

위로의 은사는 삶 속에서의 권면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은 구약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반면, 위로는 사람들의 실천과 권면에 초점을 둡니다.

바울은 다스림도 은사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이 은사는 가난한 자, 병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은사였습니다.

2-2 적용과 나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또 내가 사모하며 구할 은사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적절한 메타포이기 때문입니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바울은 4-5절에서 "한, 같은, 서로"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공동체성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한 몸이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의 목표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절a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까지 신학적 논의에서 이제 실천적 논의로 전환함을 표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의 기초 Foundation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신앙생활의 기초 또는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_편집부, 생명의삶 PLUS, 11; Robert Mounce, Romans(TNAC), 180.

1절b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 문장에서 사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동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기초하여 사용된 동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대리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였고,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 제물로 드리진다고 말했습니다(히 9:12, 딤후 4:6; 례 23:13, 18, 37). 예수님과 바울 자신이 삶의 전부를 예배로 드린 것처럼, 성도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_편집부, 생명의삶 PLUS, 12.

2절a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의미는 악하고 불의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주의’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이성(Idea)에 도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들과도 너무 비슷한 다신론적인 우상의 예를 보여줍니다. ‘본받는다’는 단어는 “함께 모양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세속적인 사고 방식 또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_편집부, 생명의삶 PLUS, 12.

2절b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문에서 언급된 마음(nous)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 사회에서는 감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당시의 세

속적인 생각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성경적 사고방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We must “let ourselves be transformed.” The verb occurs in two other settings in the New Testament. First is Mark 9:2 (Matt 17:2), where Jesus is said to have been “transfigured” before his three disciples. Next is 2 Cor 3:18, where Paul taught that believers, as they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The transformation of which Paul spoke in Rom 12:2 is not a change effected from without but a radical reorientation that begins deep within the human heart.” _Robert Mounce, Romans(TNAC), 180.

3절a 생각하라 바울은 3절에서 같은 동사를 네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동사는 ‘생각하라’는 동사입니다. 바울의 강조 포인트는 비교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로마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현상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b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교만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훈련하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We should also note that Paul acknowledges elsewhere that believers have different gifts (1 Cor. 12:4–6), and there is the recognition that God grants believers different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1 Cor. 12:7). Thi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boasting, unless those so gifted begin to believe that the gifts possessed are due to their own moral superiority.”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3.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적절한 메타포이기 때문입니다(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바울은 4–5절에서 “한, 같은, 서로”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공동체성과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언급한 몸이라는 메타포를 통하여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Paul was fully aware of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pride in any group of believers. So he cautioned the Christians at Rome not to think of themselves more highly than they ought (v. 3), reminded them that they were all members of the one body (v. 4–5), and encouraged them to utilize their individual gifts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church (v. 6–8). ... Unity in diversity is the theme that runs through this section.” _Robert Mounce, Romans(TNAC), 180–81.

6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은사는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언급됩니다. 예언이란 특별제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아가보가 큰 기근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고(행 11:28), 바울의 수감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된 예언도 있습니다(행 21:10–11). 이렇게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aul’s main point is that those who have such gifts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he gift that they have received. Those who serve to service, those who teach to teaching, and those who exhort to exhorting. Paul makes these statements because discipline and perseverance are needed in order to use one’s gifts to the maximum benefit.”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5.

7절a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본문에서 섬기는 은사라는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deacon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 안에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재정 또는 물질로 섬기는 자들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aul is thinking of the gift of service in general, perhaps especially the task of rendering financial and material assistance,"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5.

7절b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새롭게 주어지는 예언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은사로 보입니다. 가르침의 은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엡 4:21, 골 1:28, 2:7).

8절a 혹은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다는 말은 삶 속에서 적용, 삶 속에서 권면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은 구약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반면, 위로는 사람들의 실천과 권면에 초점을 둡니다. "Teaching concentrates more on the content of the tradition, while exhortation summons others to actions and stirs them from lethargy,"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6.

8절b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바울은 다스림도 은사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부지런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Leaders are more prone to laziness than others simply because there may be no one exercising oversight of them. Thus they may be able to skate by with less than a zealous effort,"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6.

8절b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언급합니다. 이 은사는 가난한 자, 병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은사였습니다. "The gift of mercy is present when one has a special ministry to the sick, those who are suffering emotionally, or in some other kind of distress, including the need for economic assistance," _Schreiner, Romans in Baker Commentary, 366.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10월 16일 본문, P182

핵심 주제 Focus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스가랴 3장 1~10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레스 황제는 주전 538년 경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뒤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방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고, 성전 건축이 재개 되었습니다. 주전 516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셨으며, 머리에 무엇을 씌우셨나요? (1~5절)

1-2 <적용과 나눔> 죄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묵상 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며, 무엇을 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8절)

2-2< 적용과 나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종', '씻', '돌'이라는 메타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시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확복케 하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2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핵심 주제 Focus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합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스가라 3장 1-10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p>1 <여호와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p> <p>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p> <p>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p> <p>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p> <p>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p> <p>6 여호와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p> <p>7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p>	<p>1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천사 앞에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p> <p>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토막이 아니냐?”</p> <p>3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었다.</p> <p>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네 죄를 없애 버렸다. 이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p> <p>5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혔다. 그동안 여호와와 천사는 그 곁에서 있었다.</p> <p>6 여호와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민이 내가 길로 행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또 내 뜻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섰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p>	<p>1 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and Satan standing at his right hand to accuse him.</p> <p>2 And the LORD said to Satan, “The LORD rebuke you, O Satan! The LORD who has chosen Jerusalem rebuke you! Is not this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p> <p>3 Now Joshua was standing before the angel, clothed with filthy garments.</p> <p>4 And the angel said to those who were standing before him, “Remove the filthy garments from him.” And to him he said, “Behold, I have taken your iniquity away from you, and I will clothe you with pure vestments.”</p> <p>5 And I said, “Let them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So they put a clean turban on his head and clothed him with garments. And the angel of the LORD was standing by.</p> <p>6 And the angel of the LORD solemnly assured Joshua,</p> <p>7 “Thus says the LORD of hosts: If you will walk in my ways and keep my charge, then you shall rule my house and have charge of my courts, and I will give you the right of access among those who are standing here.</p>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9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앉은 여호수아의 동료들아, 잘 들으라. 너희는 앞으로 생길 일의 표가 될 사람들이다. 보라. 내가 '순'이라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9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하나에 일곱 개의 눈이 있다. 내가 그 돌 위에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겨 놓겠다.
10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한다."

8 Hear now, O Joshua the high priest, you and your friends who sit before you, for they are men who are a sign: behold, I will bring my servant the Branch.
9 For behold, on the stone that I have set before Joshua, on a single stone with seven eyes, I will engrave its inscription, declares the LORD of hosts, and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is land in a single day.
10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of hosts, every one of you will invite his neighbor to come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고레스 황제는 주전 538년 경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뒤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방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고, 성전 건축이 재개 되었습니다. 주전 516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벗기고 무엇을 입히셨으며, 머리에 무엇을 씌우셨나요? (1-5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해설 더러운 옷과 관련하여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배설물 또는 대변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죄의 더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절에서 스가랴는 대제사장이 많은 죄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심각성을 암시합니다.

레위기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쓰는 정결한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기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1-2 <적용과 나눔> 죄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묵상 할 때,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지우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2-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며, 무엇을 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8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가리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종 썩'을 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썩 the Branch를 나게 할 것이라는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썩이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사 11:1, 렘 23:5).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료들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히 7:26-27; 뱀전 2:5, 9).

2-2 <적용과 나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스기라는 3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썩 the Branch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다른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교제를 나눌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과 리더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일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스기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종', '썩', '돌'이라는 메타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시며,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화목케 하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1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2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절a 사탄은 이 단어는 대적하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왔으며, 명사로서 대적자 또는 반대자를 의미합니다. 욥기와 스가라서 본문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고소자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We can say, though, that the posture of tn at "his [Joshua's?] right hand" signifies courtroom imagery. A similar usage to the one found in Zech 3:1 occurs in Ps 109:6: "Appoint an evil man to oppose him; let an accuser [Hb. tn] stand at his right hand."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287-4291).

1절b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에서 언급된 대제사장은 학개 1장 1절에서도 언급되는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정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oshua, the defendant, whose fouled vestments portray his own defilement, also epitomizes sinful Judah. If the high priest is so filthy, how much more the nation as a whole."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223-4224).

2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표현에서 '불'은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도시가 불에 탄 것을 비유로 언급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탄 것처럼 멸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탄 나무를 꺼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을 암시합니다. "God's grace in rescuing his people before judgment crushed them, offering them salvation so they could serve him in peace and security (see also 1 Cor 3:15)."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330-4331).

3절 더러운 옷 원어적으로 더럽다는 단어는 배설물 또는 대변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죄의 더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절에서 스가라는 대제사장이 많은 죄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유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심각성을 암시합니다. _편집부, 생명의삶 PLUS, 316-319.

4절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스가라는 개인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8:36-38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역시 공동체적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묘사하는 데 언급되었습니다. 스가라 3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을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Zechariah portrayed the sin the Lord forgives by using the term "iniquity" (wn), one of the more distinctive words for sin in the Old Testament, which can be defined as "perversion or deliberate sin against the Lord." Exod 28:36-38 employs the same word for sin, explaining how the priest received on himself the sin of the people."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386-4389).

5절 정결한 관리 이 단어는 깨끗한 또는 정결하다는 의미이며,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쓰는 정결한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상태가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The filthy clothes removed from Joshua must have included a dirty hat or mitre. The priestly mitre normally worn by priests bore the inscription, "HOLY TO THE LORD" (Exod 28:36; 39:30)."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423-4424).

7절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에서 언급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전에서 의 예배가 회복되며,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_편집부, 생명의삶 PLUS, 316-319.

8절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의 종 '싹'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심각한 부정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다윗의 혈통에서 오는 메시아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렘 23:5; 33:15).

"In the Old Testament, the prophets often used the term "branch" (see Isa 4:2; 11:1; Jer 23:5; 33:15; Ezek 17:22-24; Zech 3:8; 6:12). ... More importantly, the metaphor portrays the whole Davidic line of kings, culminating in Christ."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493-4494).

9절a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구약성경에서는 종종 돌이 하나님 또는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시 118:22-23; 사 8:13-15). 스가라는 9절에서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종 Servant와 싹 Branch를 언급했습니다. 스가라가 언급하는 이 돌 역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의 이미지로 언급됩니다(마 21:42, 벰전 2:7-8, 엡 2:19-22).

"The titles "Branch" and "Servant" both have messianic significanc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stone" motif also has messianic nuances within the larger Old Testament context. ... Moreover, Eph 2:19-22 portrays Christ as the chief cornerstone on which his Church rises."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566-4567).

9절b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많은 기독교 학자들은 9절에 언급된 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돌에 새긴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한다는 표현은 하루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The messianic understanding held by Christian scholars from the time of the early church to the present often identifies the engraving on the stone as the wounds Christ suffered when atoning for the sins of humanity. The messianic perspective believes that the stone's removal of sin "in a single day" predicts the redemptive suffering of Christ on the cross." _ 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573-4575).

10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의 종 싹 the Branch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다른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언급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과 교제를 나눌 것을 의미합니다.

"The invitation to enjoy God's blessings extended to Israel's neighbors and reflected a new spirit of harmony and fellowship among the Lord's people, not to mention with her neighboring nations." _George Klein, Zechariah in NAC (Kindle Locations 4676-4677).

• 10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주요 사역 일정

- 10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굳건한 동역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소서.
- 10월 10일부터 진행되는 부부학교를 통해서 참여하는 많은 부부들이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소서.
- 10월 26일에 진행되는 임직식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게 하소서.
- 10월 31일에 진행되는 Family Fall Festival을 통해서 교회 안의 다음 세대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소서.
- 전도폭발 과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 수요 여성 가을예배에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고, 모든 참여자들이 힘을 얻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 HJI 가을학기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어린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 49기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을 통해 자원자들이 훈련을 받고 성숙한 양육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 양육강좌(한어권 일과 영성, 영어권 Work and Faith, 마가복음으로 세우는 가족관계2)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 관계기술훈련 리트릿에 은혜를 주시고 8주 동안 진행되는 실습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며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 영어 예배 가운데 특별한 기쁨 부으심으로 영어권 성도들과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 학생들을 영적으로 돌볼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하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 두려움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믿음으로 잘 붙잡게 기도해주세요.
- NEXT PTA에 세워진 리더십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새해에 학생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활동할 때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기게 하소서.
- NeWave 에서 시작되는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며,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순장교구장 리트리트



일시 2025. 12. 6.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

장소 바셀 캠퍼스 빌딩 1 본당

대상 모든 순장, 순모, 교구장, 교구모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